“열정 · 예산 쏟아 명실상부한 차 명문으로”

나주 동신대학교, 4년 과정 茶학과 개설

2007학년도부터 학생 모집

동신대 김필식 이사장(왼쪽)이 7월 11일 용운 스님(초의학술재단 이사장)과 함께 차학과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나주는 고려시대 임금님께 진상했던 뇌원차가 만들어진 곳일 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양의 차가 생산되는 곳입니다. 이곳에 차를 학문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학과를 개설해 나주를 명실상부한 차문화 중심지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초의선사의 출가지이자 다산 정약용이 어린 시절을 보낸 전라남도 나주. 이곳에 2007학년부터 4년 과정의 차 학과를 개설하는 동신대학교의 김필식(63) 이사장은 차 학과 운영에 큰 자신감을 비쳤다.

동신대는 1986년 동신공과대학으로 설립된 뒤 90년 동신대학으로 개명했다. 92년 종합대학으로 승격돼 현재 주간 1개 학부 · 41개 학과, 야간 2개 학과가 운영되고 있다.

4년제 학부 과정의 차 학과 개설은 서원대(2006년 개설)에 이어 두 번째. 독실한 불자이자 80년대부터 차와 인연을 맺어 온 차인인 김 이사장이 차 학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최근 차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감에 따라 학과 개설은 ‘시대적 요청’이라고까지 일컬어질 정도였지만,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대기업 등과 연계 전문성 강화
국가 인증 자격증 취득도 추진

“처음에는 교수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차에 대해 4년씩이나 배울게 뭐가 있냐는 거죠. 하지만 차인들은 ‘평생 배워도 차를 다 못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동안 차문화가 일부 애호가들을 위한 교양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차도 학문적 토대를 닦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

학과 커리큘럼과 운영 방안을 고민하던 김 이사장은 초의학술재단 이사장인 용운 스님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용운 스님은 차문화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로 차의 대중화와 산업화 · 학문 정립을 꼽고, 대학에서도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교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이론 연구에서 벗어나 차의 품종을 개량하고 제다 기술을 발전시키며, 차의 품평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신대 차학과의 커리큘럼 역시 여기에 중점을 두고 분야별 전문 교육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대기업과의 인턴 교육, 영농조합 지리산명차원에서의 제다 실습, 동신대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와의 협력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한 대학 내에 차 품질평가실과 다예실, 묘포장 등을 지어 실습의 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내 기준에 맞는 다예사, 제다사, 품질평가사 국가 인증 자격증 취득도 추진한다.

김 이사장의 포부는 단지 학부 과정의 차 학과에만 머물지는 않는다. 일반대학원 내에 석사, 박사 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향후 ‘차 대학’까지도 만들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동신대학교내 다례실습실 모습.

“차 학문의 주춧돌을 놓는다는 생각으로 열정과 예산을 투자할 것입니다. 앞으로 차라고 하면 동신대를 떠올릴 수 있는, 명실상부한 ‘차의 명문’으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나주=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차학과 현황

차 학과 현황		
구분	개설 학과	비고
학부	서원대 차학과	4년제
	동신대 차학과	4년제
	원광디지털대학 차문화경영학과	사이버대학
	부산여대 차문화복지학과	2년제
	마산대학 국제소믈리에학과	2년제
석사과정	성균관대 생활과학대학원 예절다도학과	
	성신여대 문화산업대학원 예절다도학과	
	원광대 동양학대학원 예문화와다도학과	
	한서대 건강증진대학원 차학전공	
	목포대 국제차문화학 협동과정	
박사과정	원광대 동양학대학원 예문화와다도학과	

‘소수인의 기호식품’으로 취급받던 ‘차’가 학문의 영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그간 각 대학이 특수대학원이나 사회교육원 등에 석사 과정을 운영하던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최근 서경대와 동신대 등이 4년제 학부 과정의 차 학과를 개설했다. 학부과정 개설은 차가 엄연한 ‘학문’의 대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차 전문 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9개 대학에 학생 1000여 명
더 많은 대학서 ‘개설’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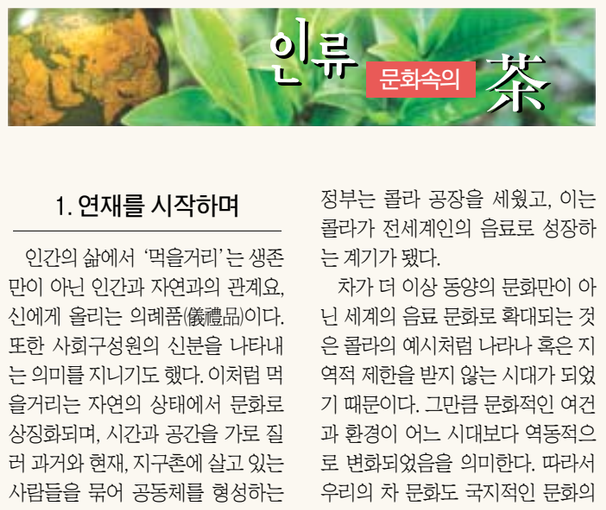
현재 국내 차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9곳.(아래 표 참조) 재학 중인 학생만도 1000여 명에 이른다. 이 중 원광디지털대 차문화경영학과는 매년 200여 명의 학생이 지원할 정도로 학생 수도 만만치 않다.

이처럼 차는 이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음료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았고, 이를 학문으로 승화시키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의 요구와 사회적 필요에 의해 차 학과를 개설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편 서원대와 동신대는 현재 2007학년도 수시 1학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동신대는 7월 22일까지(061-330-3333), 서원대는 7월 21일까지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043) 299-8471

瑞榮普洱
진년보이 · 진년오룡 · 철관음 · 오룡차
대흥포 · 화차 · 인삼오룡 外 40여가지의 茶
보이차 전문점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1. 연재를 시작하며

인간의 삶에서 ‘먹을거리’는 생존만이 아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요, 신에게 올리는 의례품(儀禮品)이다. 또한 사회구성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의미를 지니기도 했다. 이처럼 먹을거리는 자연의 상태에서 문화로 상징화되며, 시간과 공간을 가로 질러 과거와 현재,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묶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많은 인종과 다른 언어를 가진 각각의 민족이나 사회집단은 그들의 생각과 풍토성에 어울리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차 또한 각 민족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자연의 상태에서 문화로, 인류 역사에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중국에서 차는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약용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이래 만드는 법의 변천에 따라 음용 방법도 달라졌으며 차와 관련된 다기의 발전과 함께 독특한 문화로 형성됐다. 한편 선종(禪宗)과 융합된 차는 종교적인 색채를 띠면서 정신적 가치를 지닌 음료로 발전했으며 귀족의 음료문화에 영향을 주었다.

한국과 일본에 유입된 중국의 차 문화는 민족성과 기후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의 차 문화를 이룩하였다. 특히 일본은 ‘다도(茶道)’라는 정형화된 차 문화를 이룩했고, 이는 정치적 상황을 가장 적절히 변혁시키는데 이용되었다.

일찍이 실크로드를 따라 서역에 전해진 차는 17세기에 기호식품으로 유입되었다. 초창기 영국에서 차는 궁정과 신사계층(紳士階層) 사이에서 즐겨 마시는 사치품이었다.

영국인들은 커피에서 차로 음료를 바꾸면서 홍차문화라는 거대한 음료문화를 이룩하여 그들의 생활 방식과 문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기호식품은 일종의 사치품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신분을 드러내는 사회성을 가지며 개인과 사회에서 다른 색깔의 문화를 형성한다.

콜라의 예를 들어보자.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한 장교는 ‘코카콜라를 마시기 위해 싸운다’는 병사의 말을 듣고 정부에 콜라를 대량으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콜라 공장을 세웠고, 이는 콜라가 전세계인의 음료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차가 더 이상 동양의 문화만이 아닌 세계의 음료 문화로 확대되는 것은 콜라의 예시처럼 나라나 혹은 지역적 제한을 받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문화적인 여건과 환경이 어느 시대보다 역동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의 차 문화도 국지적인 문화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보편적인 인류의 문화로 발돋움해야 한다.

오늘날 차는 웰빙 식품으로 대중과 많이 친숙해졌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차는 곧 다례(茶禮)’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 듯하다. 그래서인지 ‘차는 사람에게 어떻게 좋은가’ ‘다도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자주 듣곤 한다.

차를 마시며 느끼는 한가로움, 가슴 설레는 차 향기 등은 차가 인간에게 주는 덕성(德性)이며 이상(理想)이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차는 음료 · 수행 · 사교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 · 경제적 가변성을 가지고 인류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지역적 제한 벗어나 인류 문화로 확대돼야

필자는 시대에 따라 국가와 민족마다 다르게 이용되고 변화되어온 차 문화에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시작된 차에 대한 접근은 어려움과 즐거움이 동반됐다.

앞으로 ‘인류 문화 속에 차’에서는 차에 대한 시야를 넓히며, 시 · 공간을 가로질러 과거와 현재의 인간관계 속에서 차의 의미와 상징성을 정치 · 경제 · 사회적 측면에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 이창숙씨는?

성신여대 문화산업대학원에서 석사(예절다도학)를, 한양대 문화인류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연구원, 중국 사천(四川)연구회원, 성신여대 문화산업연구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논문으로는 ‘차 생리활성에 관한 종합적 고찰’ 등이 있다.

차용품전문회사 홍다원

홍다원이 위치한 북촌지역(가회동, 삼청동 일대)은 조선시대 경복궁과 창덕궁, 종묘의 사이에 위치해 서울 600여년의 역사와 함께 한 전통 거주지역입니다. 주변에는 북악산과 인왕산이 있어 예로부터 길지(吉地)로 알려진 지역이기도 합니다.
홍다원은 중국 전통의 보이차와 다구용품을 전시 판매하는 회사로 중국 보이차와 한옥의 멋스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따스한 공간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수집한 50여가지의 골동품도 전시하고 있어, 차와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보이차
홍다원은 10년 전부터 주재원이 상주, 곤명의 운남성 차엽공사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다원의 보이차는 식약청의 검사를 통해 직수입하고 있습니다.

■ 전시된 보이차 · 목공예 작품과 함께 차를 시음하실 수 있는 공간

자사호
홍다원의 자사호는 이싱(宣興) 정산 황용산의 홍니만을 사용하여 직접 작가에게 주문의뢰한 작품을 취급하며, 고객이 원하는 작가의 작품 또한 주문생산하고 있습니다.

■ 퇴수기와 각종 차용품, 보이차를 진열한 공간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74 www.hongdawon.com
TEL : 02)744-3311 / FAX : 02)744-3700

교보문고 비소설부분 베스트셀러 선정
중국차의 이해!
차문화가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우리 국내는 상당부분 중국차가 보급되어져 있다. 또한 우리가 중국을 여행 하면서 차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선물을 받아 집에는 한두 종류의 중국차는 누구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선물을 받았으나 이 차가 무슨 차인지 어떻게 우려 마시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내용들은 필자가 현장을 직접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내용을 정리 하여 중국차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사호 제작과정, 차를 판매하는 시장 등을 소개하여 쉽게 중국차를 이해 할수 있는 책이다.

중국차가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알고 싶으세요?
자사호(紫沙壺)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중국차 우리기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중국차의 이해를 보시면 이 모두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국차의 현장을 현재 진행형으로 생생하게 기록한 중국차 지침서

• 컬러(183×235), 288페이지 • 저자 : 김경우 • 가격 : 24,000원
구입문의 : 월간 다도 Tel : 02)722-7777